

# 금호산업 주가 급락 ... 인수가 낮아지나

### 지난 2월보다 54%나 떨어져 1만4000원 선

### 시가 총액 절반으로 ... 박삼구 회장 유리해져

오는 7월 금호산업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매각협상을 앞두고 금호산업 주가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어 박 회장이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금호산업의 매각가격 역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호산업 주가는 전날보다 2.18% 상승하며 1만4050원에 마감됐다. 반짝 상승했지만 흐름은 약세를 계속되고 있다. 전날엔 1만4000원선이 무너져 1만3750원의 등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호

산업의 주가는 지난 4월 채권단의 금호산업 공개매각 당시 호반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불발된 뒤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연고점이었던 지난 2월26일의 3만300원에 비하면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주가가 54%나 급락했다. 시가 총액 역시 같은 기간 1조580억원에서 4820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금호산업 주가의 하락세는 7월 중 열릴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 채권단과의 가격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호산업 매각가격은 '시가+경영권 프리미엄'으

로 정해질 계획인데, 박 회장에겐 인수가격을 낮출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가 하락은 기업 가치의 하락을 말하는 것이고, 박 회장은 결국 값을 더 깎으려 노력할 것"이라며 금호아시아나 측이 현재 시가를 토대로 가격 인하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채권단이 호반건설이 응찰 당시 제시했던 6007억원도 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호반건설은 지난 4월28일 금호산업 입찰에서 인수가로 6007억원을 제시했지만 7000억원 이상을 원하던 채권단이 매각을 유찰한 바 있다. 당시 금호산업 주가는 2만2850원이었으며 시가총액은 7981억원에 달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현재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실사를 하고 있다. 실사가 끝나면 7월 채권단이 박 회장과 가격 협상을 거치게 되고 8월엔 박 회장에 가격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순으로 매각이 진행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실사중인 상황에서 언급할 말이 없다"며 "주가 하락과 별개로 가격 협상 과정 등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며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금호산업은 올해 신규사업이나 해외 진출보다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수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8.72 (-13.60)

금리 (국고채 3년) 1.77%

▲ 코스닥 706.28 (+0.43)

▲ 환율 (USD) 1118.60원 (+1.30)

## '은행 점포는 1층' 정석 깨고 광주·전남서도 2층 점포 는다

### 비싼 임대료·고객 감소 탓

### 광주·신한은행 등 '탈1층'

은행 점포는 1층이라는 정석이 깨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은행 점포의 '탈(脫) 1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도 2층 점포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점포 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지역은행인 광주은행. JB금융지주에 편입한 광주은행은 새 체제를 맞아 '미니 점포' 전략을 추구하면서 신설 점포의 경우 어김없이 2층 이상에 들어섰다.

지난해 말 한국전력 본사 이전에 맞춰 한전 2층에 지점을 개설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나주 빛가람동 이화프라자 2층에 혁신도시 두 번째 지점인 빛가람지점을 개설했다. 두 곳 모두 지점장을 포함, 직원이 모두 5명인 미니 점포다.

광주에서도 동림과 효천, 농성지점이 1층 점포를 정리하고 2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존 은행 자리에는 할인마트 등이 들어섰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11개 점포 중에서도 강남지점을 제외한 10곳이 2층에 동지를 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시중은행에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신한은행은 광주고등·지방법원 앞 5층 건물 2층에 출장소를 개설, 운영 중이다. 하나·국민·우리·농협·기업 등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아직까지 1층 점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자동화기기(ATM)만 1층에 두고 점포는 2층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2층에 새 점포를 내는 것은 비싼 임대료도 부담이지만,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결제가 대중화되면서 직접 창구를 찾는 고객들의 수가 줄고 있다는 점이 1차적 이유다. 건물주 입장에서 오후 6시도 되지 않아 셔터를 내리는 은행보다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편의점이나 밤 늦도록 영업하는 마트 등이 건물 이미지에 오히려 낫다는 입장이다.

또 상당수 VIP 고객들이 외부 노출을 꺼려하는 점을 반영하고, 수익성 악화에 따른 비용절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속형 점포가 은행 수익성 측면에서 낫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1층 명당 시대는 이제 서서히 저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경총, 광주시와 손잡고

### 중기 청년 인턴 채용기업 모집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가 광주시와 2015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인턴 및 채용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광주경총으로부터 청년 구직자를 알선받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면 인턴 기간 3개월에 월 9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전환 후에는 월 1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66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062-654-3425~8).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16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지방순회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건설업자의 부당한 대물변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총 8건이 심의·의결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 기아차 40년만에 1500만대 수출 대기록

### 5월까지 1490만대 이달중 돌파

기아자동차가 수출을 시작한 뒤 40년 만에 1500만대 수출이라는 대기록을 눈앞에 뒀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는 157만대가 수출돼 기아차 전체 수출 차종 가운데 수출량 2위에 올랐다.

기아차는 올해 5월까지 1490여 만대를 수출해 6월 중 15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16일 밝혔다. 완성차 1500만대는 기아차의 중형 세단 K5(전장 4845mm)를 일렬로 늘어놓을 때 국내 최장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416km)를 87번 왕복할 수 있으며 지구 둘레를 1.8바퀴 돌 수 있는 거리와 맞먹는다.

기아차의 수출 역사는 1975년 소형 트럭인 '브리사 픽업' 10대를 카타르에 수출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2005년에 500만대에 이어 2011년 3월 1000만대를 넘어섰으며 다시 4년3개월 만에 1500만대 고지에 올랐다. 기아차는 연간 25만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1998년부터 연간 수출 실적이 내수 판매를 넘어섰으며 2011년부터는 매년 100만대 이상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4만대를 수출해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수출 1위에 올랐다. 수출금액으로 따지면 167억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액의 2.9%를 차지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현대차그룹에 흡수된 199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338만



9923대를 수출했다. 국내 생산분의 전량을 생산하고 있는 스포티지(스포티지R 포함)의 경우 2004년 광주공장 생산개시 후

올해 5월 말까지 110만5485대가 해외로 팔려나갔다. 현대차그룹 인수 전 기아차가 1993년부터 수출한 옛 모델까지 합하면 156만5217대가 수출길에 올랐다. 광주공장 생산의 쏘울 역시 북미시장에서의 인기로 힘입어 누적 수출대수가 100만723대를 기록했다.

기아차 전체 모델별로는 소형차 프라이드가 올해 5월 말까지 총 223만대가 수출돼 최대 수출 모델로 집계됐다. 이어 스포티지(157만대), 모닝(143만대), 쏘렌토(108만대)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603만대로 가장 많았다.

기아차 관계자는 "누적 수출 1500만대 달성을 계기로 앞으로 고용 창출과 무역수지 개선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세계 톱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사물인터넷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 반제품에도 전자태그 부착

금호타이어가 완제품에 이어 반제품에도 제품 고유 정보를 기록한 전자태그(RFID)를 적용한 사물인터넷 기반 생산·유통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호타이어는 2013년부터 트럭·버스용 타이어에 이어 지난해 승용차 타이어까지 완제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왔는데 이달 초부터 국내 공장의 반제품 공정까지 이를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공장에서는 반제품을 운반하는 모든 캐리어에 전자태그가 붙어 제품의 위치와 입·출고 내역, 재고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른 반제품의 엄격한 관리로 잠재적 고객 불만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신차용 타이어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금호타이어는 기대했다.

금호타이어는 세계 타이어업계에서 최초로 제품관리 시스템에 전자태그를 도입했다.

저장 용량이 작고 인식 거리가 짧아 사용에 제약이 많은 바코드와 달리 전자태그는 대용량의 다양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백갈비,삼겹살 & 돈까스

### 아이엘리시아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객 1,000원 할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떡갈비	12,500원	8,500원	5,000원
떡갈비, 떡갈비	14,500원	9,000원	5,500원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b>남</b>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b>사법, 행정고시 합격자</b>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b>세무사, 연구원</b>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b>교사, 교수</b> 28-49세	<b>여</b>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태디움, 영양사 26-42세 미스크리마, 미스전복 27-36세	<b>남</b>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간직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지너 남성' 희망 28-48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랜드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산동